

영암 다시 시작이다

4 향후 대회 성공 이끌려

대한민국 빅이벤트, 정부·대기업이 나서야

국격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 큰 도움

2800억 투자 브리지스톤 "남는 장사"

세계 최고 타이거계급 중 하나인 브리지스톤은 '2010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ship)의 글로벌 스폰서를 위해 1400억원을 쏟아부었다.



지난 24일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린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질주하는 머신들과 함께 DHL·LG 등 글로벌 스폰서로 활동하는 기업들의 로고가 전 세계 200여개 국가에 쫓겨갔다.

그렇다면 투자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예선전이 펼쳐진 지난 23일 영암 서킷에서 만난 하마사마 히로히데 브리지스톤 모터스포츠 타이거계 발본부장은 "F1 대회 참여만으로 최첨단 기술축적에 관매촉진, 브랜드 홍보 등 투자금액을 훨씬 웃도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단언했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부터 F1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를 계기로 영국·프랑스·브라질 등 선진 시장에서 브랜드 선호도가 15%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림픽·월드컵 축구와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로 꼽히는 F1 대회는 대회 하나 평균 관람객이 20만명에 이르고 연간 관람객만 400만명을 육박하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다르다. 최근 폐막한 2010 코리아 그랑프리도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스폰서 광고는 사실상 전무했다.

시속 320km의 속도로 서킷을 질주하는 24대의 F1 머신 양쪽으로 설치된 안전시설과 펜스가 스폰서를 찾지 못해 맨살을 그대로 드러냈다.

KAVO의 마케팅 전략을 문제로 보고 있지만 국내에 F1 대회가 생소한데다, F1을 통한 마케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섣불리 나서지 않겠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대로라면 가뜰이나 팍팍한 지역민들의 호주머니를

떨어 경주장을 지어놓을 뿐 수백만달러의 연봉을 받고 전세기를 타는 일부 드라이버와 레이싱팀 등에 무작정 퍼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기업 스폰서 이끌어내야=전문가들은 F1 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브리지스톤 코리아 사도 토모야 사장은 "F1은 우리 회사의 타이거 기술을 평가받는 기회이면서 세계 최고 타이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지난 1997년 F1 대회 첫 스폰서로 나선 브리지스톤의 유럽 시장 인지도는 5%에 불과했다. 현재는 25%로 급성장했다. 브랜드 가치 상승 뿐만 아니라, F1 대회에 참여하면서 우선시 물의 흐름저항을 최소화해 수확현상을 막는 기술을 개발, 일반 자동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판매도 늘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단순한 자동차 경주대회가 아닌,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 하는데 도움을 주는 마케팅 창구로 활용하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남도 주도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끌어 낼 수 있는 치밀한 전략 수립도 절실하다.

◇정부도 적극 지원 나서야=정부의 태도 변화도 시급하다. 'F1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던 정부는 현재 약속했던 경주장 건설비(352억)를 지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대회 운영비(60억)도 챙기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F1 대회를 통해 국내 자동차업체와 관련 산업이 첨단 기술력을 갖춰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설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남발전연구원 이진철 실장은 "F1 대회를 계기로 모터스포츠 산업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활성화될 수도 있음을 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1억 7200만 달러 투자유치

역대 최다액...美·日서 10개 기업과 MOU

강운태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투자유치단'이 일본에서 5개사와 2200만달러의 투자 MOU를 체결한데 이어, LA에서 5개 기업으로부터 1억 7200만달러의 투자 MOU를 체결함으로써 광주시 역대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강운태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투자유치단'이 27일(현지시각) 미국 LA 월셔그랜드 호텔에서 미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1억2200만달러의 투자 MOU와 5000만달러의 문화산업 수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광주시 투자유치단은 해외 출장 셋째날인 27일(미국 현지시각) 미국과 한태평양 경제권의 주요 거점인 LA에서 미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1억2200만달러의 투자 MOU와 5000만달러의 문화산업 수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LA 월셔그랜드호텔(Wilshire Grand Hotel)에서 열린 이번 투자환경설명회에서 미국 기업인들은 광주 광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3D 영화제작, 가전산업, 광산업, 관광호텔업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에리조나주 소재 케이투에이엠(K2AM)은 광주 소재 3D업체인 쉐키노모티브사와 협력, 할리우드 영화투자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45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한데 이어, 향후 5년간 5000만달러 규모의 컴퓨터그래픽 작업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투자 및 수주 MOU를 체결했다.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소재한 2G 디지털 포스트는 3D영화 제작과 관련해 500만달러의 투자 MOU를 체결했다.

LA 소재 터보에어사와의 공동의국인투자지역에 설립한 프리미어사의 증설을 위해 2000만달러 투자 MOU를 체결했다.

투자유치단은 또 재미교포 사업가와 5000만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투자MOU도 체결했다.

미국 투자유치활동에서 거뒀던 문화산업 분야의 성과는 강 시장 취임 이래 문화 콘텐츠산업을 5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것이 결실을 거둔 첫 사례다.

이에 앞서 광주시 투자유치단은 일본 투자유치 활동에서 나노 응용기술 강화유리 기업 등 5개사와 2200만달러의 투자 MOU를 체결했다. 강 시장 일행은 28일 미국의 자매도시인 샌안토니오시를 방문, 우호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는 등 폭넓은 투자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전남도는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6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6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6개 기업과 265억 투자협약

전남도는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최형식 담양군수, 정기호 영광군수, 아리랑푸드영농조합 등 6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65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새암푸드먼트(대표이사 김용주)는 본사를 경기 용인에서 영광 묘량으로 이전키로 하고 2012년까지 7000㎡의 부지에 32억원을 투자해 식품가공공장을 건립키로 했다.

매출액이 200억원에 이르는 학교급식 음식 재료 유통전문 중견기업으로, 영광공장이 완공되면 고용인원은 53명, 연간 매출 규모는 6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원일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오중석)도 영광 법성지역 1만5000㎡ 부지에 26억원을 투자해 장류제조 등 생산공장을 짓는다. 이외 아리랑푸드영농조합법인, 진환경역단, ㈜중이와 포자지는 담양에 제조공장을 건립키로 했다.

21번째 열린 디스카 F1은

성공 우려속 시작 저변 확대 공들여 인기 스포츠 자리

일본 스텝카 그랑프리도 열리는 날이면 미에(三重)현 북부에 있는 조그만 도시 스즈카시는 9만명이 넘는 관람객들로 북적인다.

올해의 경우 폭우로 세차레나 예선 경기가 지연되고 결국 다음날로 연기됐는데도 끝까지 스탠드를 지켜볼 정도로 마니아들도 많다.

올해로 21번째 열린 F1 스즈카 그랑프리도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은 아니다. 1962년 혼다의 테스트트랙으로 지어졌던 20년이 넘는 1987년부터 F1 대회를 개최할 때만 해도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시설 낙후문제로 고텐바시(市)로 대회 유치를 넘겨줬다가 다시 대회 유치를 성사시키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다.

하지만 서킷이 생기기면서 서킷 톨을 익힌 사람들도 늘어나는 등

자연스럽게 인기 스포츠 메카로 자리잡았다. 연중 열리는 다양한 모터스포츠도 관람객들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톡톡히했다. 요즘에는 프로 선수부터 아마추어 동호회까지 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서킷 예약률이 90%를 넘는다.

'그들만의 경주'가 되지 않도록 공감대 확산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다. 스즈카서킷의 경우 스타 선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한편, 경주장 인근에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해 어린이들이 모터스포츠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무이 료지(梅井 良司) 일본 스텝카 F1 서킷 운영이사는 "모터스포츠 대회는 특정 계층의 관심보다는 저변 확대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성일병원(법률공인) 상암점: 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계 안천점(구 시민회관) 03-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03-102-46-5110 의정부점(보현보타리) 03-102-46-5110 안양점(백산소방2001)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 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03-2039-4400 부산 서면점(사면로터리) 05-1818-8800 서면점 818-0016 남포동점(부평구청 앞) 05-1256-7200 울산 울산점(광명로터리) 05-20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7-6060 진주점(구 동명구청) 05-51745-9870 창원점(한양병원) 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 05-3425-4440 삼척점(삼척네거리) 05-3425-1511 남동점(아리랑대교) 05-3425-7575 경북 포항점(목거리) 05-4024-5110 안동점(구 안동고교네거리) 05-4659-2248 광주 광주점(구 도동) 06-2225-5110 광주점(백동광장) 06-2861-4477 전남 순천점(중앙시장) 06-752-8845 전북 전주점(신복로터리) 06-3252-5728 군산점(구 시청앞) 06-3446-0198 익산점(백사시장네거리) 06-3638-5000 남원점(시정네거리) 06-3632-2826 대전 대전점(도청) 04-2254-5110 대전점(충훈로터리)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04-1653-2868 광주점(공주문사거리) 04-1852-5110 충북 청주점(한계로) 03-822-1177-8 충북점(삼천로터리) 04-3852-1414 강원 강릉점(북산2가) 03-3647-0588 춘천점(철호광장) 03-3263-5110 제주 제주점(영랑로터리) 06-4753-4366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광주 구도심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북문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